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자

연구책임

이지훈 책임연구위원

연구진

박세현 연구원

J.T.H.I.N.K.



## 이슈브리핑 요약

- 오늘날 기업집적단지(산업단지)의 경쟁력은 용지나 도로 등 거시적인 물리적 하드웨어 제공을 넘어, 금융·세제 지원, 행정 서비스 및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등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기능적 소프트웨어 역량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대규모 투자유치 등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초기 확장 단계를 넘어 클러스터형 성숙기로 진입을 준비할 시점이며, 광활한 부지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지식과 기술이 활발히 창출·교류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시급함
- 판교테크노밸리, 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기업집적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적 기반을 둔 전담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맞춤형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인프라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본 이슈브리핑에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기업 활동하기 좋은 지속가능한 미래형 산업집적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난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 전환의 필요성과 5대 과제를 제시함
- 첫째, 새만금 기업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Legal) 마련을 제안함. 기존 단지 개발·조성 중심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입주 예비기업과 입주기업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 법적 근거를 담아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
- 둘째, 새만금 입주기업 전문 파트너로서 전담 체계(Partner) 강화를 제안함.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단일 개별기업 대상이나 여러 부처에 파편화된 다수의 국책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통합 관리·서비스할 전담 컨트롤타워 기구가 필요함
- 셋째, 상호 혁신이 순환하는 성숙한 산·학·연 네트워크형 기업생태계(Ecosystem) 조성을 제안함. 같은 부지를 활용하는 동일 및 이종 업종 간 유기적 소통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현장 중심으로 굳건히 확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자생하는 융합 생태계 공간으로 체질 전환이 이뤄져야 함
- 넷째,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지원(SW Support) 발굴을 제안함. 단편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만금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업성장 5종 패키지(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를 발굴하여 적기에 제공해야 함
- 다섯째, 새만금 하드웨어에 기반한 살아있는 거대 실험실로 공간 고도화(HW Advancement)를 제안함. 전기, 용수 등의 공급뿐 아니라, 확장되고 있는 새만금 하드웨어를 기업의 첨단 혁신 기술(AI, 탄소중립, RE100 기반 산단 등 실증)을 적극 반영해 검증·완성하는 거대한 테스트베드로 고도화시킬 것을 제안함
- 5가지 과제를 종합하여, 새만금 국가산단이 지속가능한 미래형 집적단지로 도약(LEAP)하기 위해 법적기반(Legal), 산학연 융합 생태계(Ecosystem), 공간 고도화(HW Advancement), 전담체계(Partner), 기업지원(SW Support) 등 5대 과제를 하나로 묶어 'LEAPS for 새만금' 프로젝트 제시함

# I. 기업집적단지 하드웨어만으로 부족 : 소프트웨어 기업지원의 의미와 효과

## 하드웨어, 기업집적의 시작이자 필수 기반

- 하드웨어(Hardware)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지, 도로, 전력, 용수 등 물리적 기반시설을 의미하며, 기업이 집적하여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우선적 요건
  -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향후 확장성이 보장된 용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는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 시장과 빠르게 연결되는 사통팔달 물류망 등이 하드웨어에 있어서 중요
-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전국 곳곳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집적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기업에 제공
  - 1962년 국내 최초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지정 당시 울산특정공업지구) 지정, 전북 1호 국가산업단은 1974년 익산국가산업단지(지정 당시 이리수출산업단지)가 지정
  - 한국산업단지공단(2025)의 '2025년 3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 55개(전북 6개), 일반산업단지 757개(전북 24개), 도시첨단산업단지 51개(전북 1개), 농공단지 486개(전북 60개) 등 1,349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됨

## 단순한 기업집적단지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가 중요

- 포터(Porter)의 클러스터 이론에서는 “클러스터는 단순 기업집적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등이 지리적 근접성으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여 시너지를 내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실리콘밸리, 대덕연구개발특구, 판교테크노밸리 등은 단순한 기업집적을 넘어 혁신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혁신클러스터로 일반적 기업집적단지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임종빈 외, 2022)
  - 기업집적단지 내 기업뿐 아니라 연구기관, 대학, 지원기관 등이 어우러져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등으로 극도로 짧아진 기술주기에 대한 대응력 확보가 필요
- 중앙정부는 지자체별 조성된 산업단지가 단순한 기업집적을 넘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클러스터로 도약하도록 다양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금융/세제지원, 포괄적 규제완화, 기업 간 연계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모색함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에 대한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각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있고, AI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기업의 투자 규모가 조 단위 이상 대형화됨에 따라 정책금융(예 : 국민성장펀드), 세제 등의 지원도 중요
  - 기술의 복잡성으로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기존의 법령체계 속에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능한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단순 테스트를 넘어 실제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실증에 대한 수요 확대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기업집적단지는 끊임없이 진화

- Van Kline과 De Langen(2001)이 제시한 클러스터 생애 주기 이론에 따르면, 클러스터는 초기 소수기업과 느슨한 연계에서 추가적 기업의 유입과 전문화 확대 등으로 성장, 성숙, 그리고 재편·쇠퇴 등의 생애주기를 지님
  - 기업집적단지로서 지속가능한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확충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고도화가 병행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
  - 기업집적단지 초기 공간적 하드웨어 구축 중심에서 인프라와 함께 기업 간 연계, 대학과 연구기관과 협력,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대한 전환능력이 중요

## II.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진입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대규모 단일부지 조성으로 공간적 하드웨어 구축과 확장

- 새만금은 2007년에 간척을 통한 100% 농업용 용지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과 관광이 결합한 복합단지로 개발이 전환되면서 기업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라는 공간적 하드웨어 구축이 착수됨
  - 2009년 산업단지를 착공하였고, 2010년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지정, 2019년도에는 국가산업단지로 격상
  - 2013년 최초 입주계약(OCI) 체결, 2015년 최초 입주기업 준공식(이씨에스), 2016년 1호 외국인 투자기업 준공식(도레이첨단소재)
- 새만금 산업단지는 2015년 1공구 준공 이후 2공구, 5공구, 6공구 등이 순차적으로 준공되었고 현재 3공구와 7공구, 8공구 등이 조성되는 등 공간적 하드웨어가 확장되고 있음
  - 2015년 1공구 준공과 최초의 기업이 입주, 2017년 2공구 준공, 이후 5공구와 6공구도 준공
  - 2015년 1공구 준공으로 1.84km<sup>2</sup>의 공간적 하드웨어를 확보한 후, 2017년에는 누적 4.39km<sup>2</sup>, 2022년 6.20km<sup>2</sup>, 2023년 8.10km<sup>2</sup>로 새만금 산업단지의 공간적 하드웨어가 확장됨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연혁〉		
최초 계획	1989년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 (28,300ha 전체 농지 개발)
특별법 제정	2007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본구상 변경	2007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발표(농지 72%, 산업·관광 등 28%)
산업단지 착공	2009년	새만금 산업단지 기공식(2009.3.27.)
일반산업단지 지정	2010년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지정
새만금개발청 출범	2013년	새만금개발청 출범(2013.9.12.)
최초 입주계약 체결	2013년	OCI 입주계약 체결(투자협약은 2010년)
최초 입주기업 준공	2015년	입주계약 업체 중 최초 준공식(이씨에스, 2015.9.3.)
1공구 조성완료	2016년	1공구 매립(2012년) 및 조성 완료(2016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2019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5공구, 6공구 등 매립·조성	2024년	5공구/6공구 조성완료, 3공구/7공구 산업용지 매립완료
제2국가산업단지 추진	2025년	새만금개발공사,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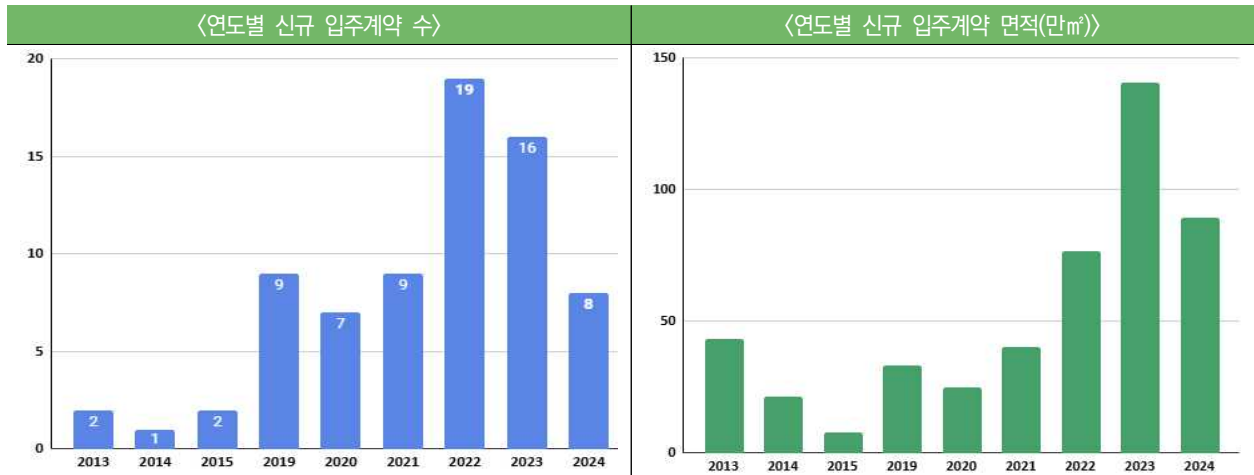
### 중앙부처가 선택한 첨단산업의 중심지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19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받은 이후, 강소특구,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각종 중앙부처가 지정하는 단지로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다수의 부처로부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지정
  - 각 부처별로 지정한 단지로 인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연구소기업 설립과 함께 각종 세제 혜택(법인세, 취득세) 등의 혜택이 부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지정 특화단지 현황〉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기후부)	2019년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특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군산강소특구 지정(과기부)	2020년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구 강소특구 지정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국토부)	2022년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산업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기업입주계약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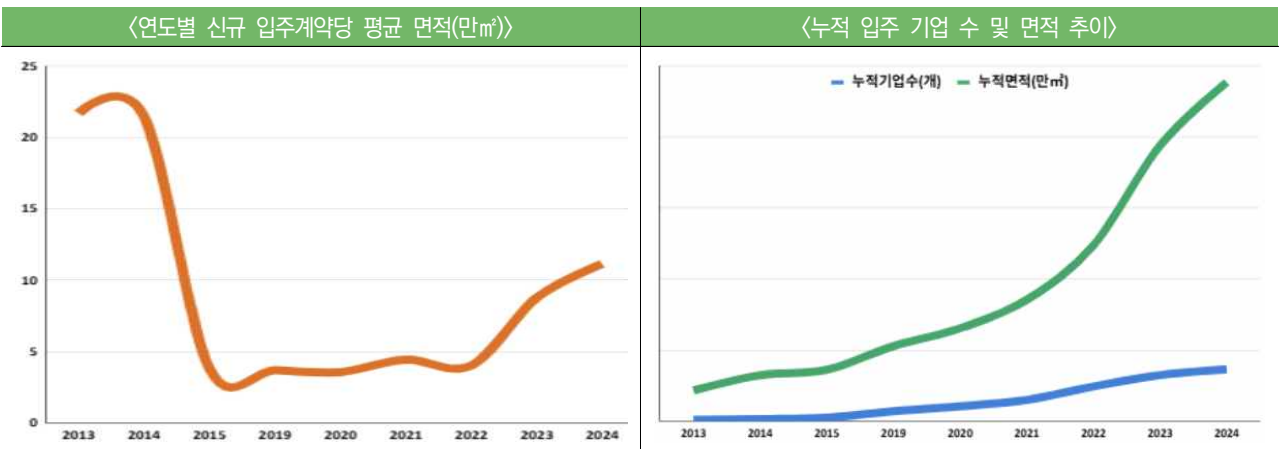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13~2015년 연간 1~2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까지 0건으로 침체기를 거쳤으나,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 이후 2019~2021년간 연간 7~9건으로 증가, 이후 2022~2024년 3년간 총 42건의 계약이 체결됨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계약은 2013~2018년까지 5건에 불과하였으나 2019~2021년간 37건, 2022~2024년간 42건 등 신규 계약 건수가 증가(출처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계약 현황, 2024년 12월 기준)



출처 :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자료 연구진 재구성

### 소규모 기업투자에서 대규모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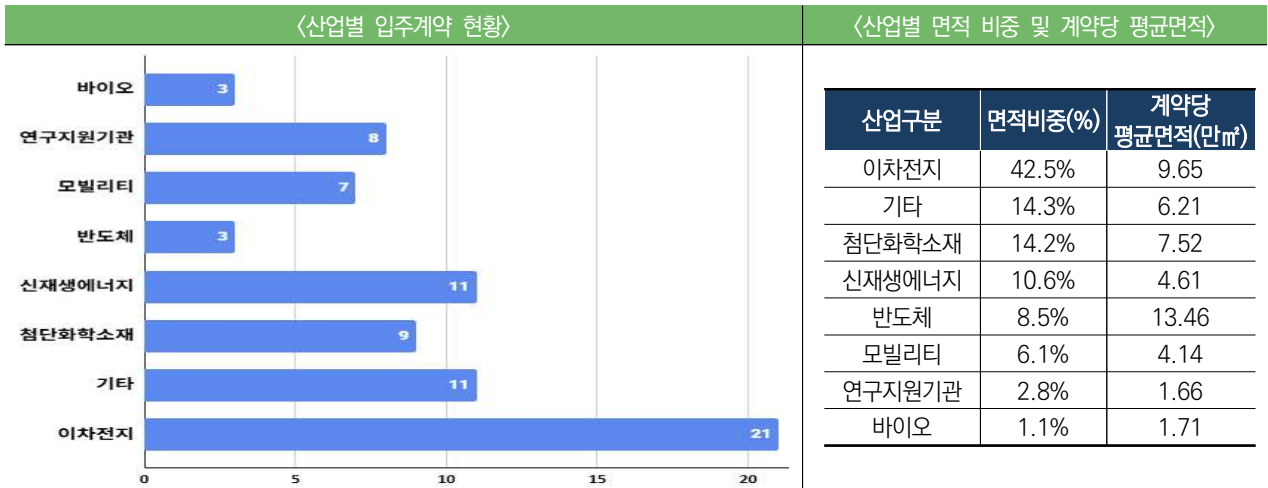
- 연도별 신규 입주계약당 평균 면적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OCI, 도레이첨단소재 등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는 소수기업 중심이었고, 이후 소규모 기업중심으로 입주하는 시기를 거쳐 2023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U자형을 보임
  - 2015~2022년간 40,000㎡ 전후에 불과, 2023년 87,700㎡, 2024년에는 111,500㎡로 큰 폭으로 증가
- 누적 입주 기업 수 및 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을 기점으로 누적면적의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소규모 입주기업 중심에서 대형투자자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 2013~2021년(8년간) 동안 누적된 면적 170.82만㎡에 불과하였으나, 2022~2024년 3년간 추가된 면적은 306.23만㎡으로 최근 3년이 이전 8년에 비해 1.8배의 규모
  - 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계약 수 차원의 성장뿐 아니라, 짧은 기간에 더 큰 투자가 집중되는 대형 투자 중심으로 전환도 내포하고 있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태동기를 넘어 성숙기의 과정을 지나고 있음을 의미함



출처 :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자료 연구진 재구성

### 산업구성 다양화와 기술혁신 지원인프라의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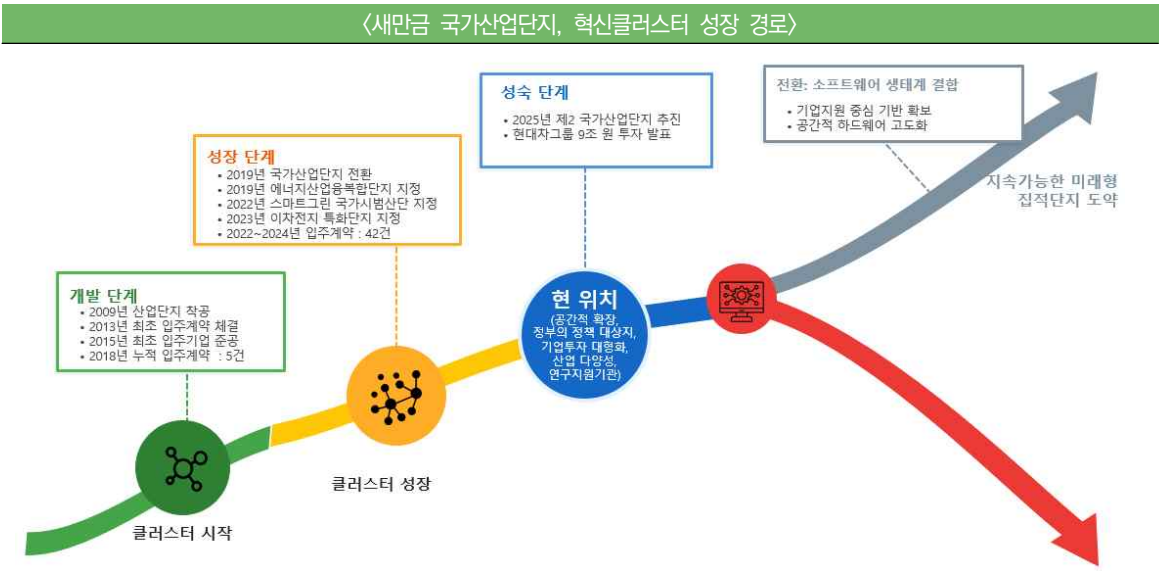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조성 초기에는 첨단화학소재에서 출발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이 순차적으로 진입하여 산업의 구성이 한층 다양해짐
  - 입주 계약 기준 이차전지(21개), 기타제조(11개), 신재생에너지(11개), 첨단화학소재(9개), 모빌리티(7개)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각화된 산업으로 구성되어 산업 간 시너지가 가능한 생태계의 성숙단계 형성
  - 면적기준으로는 이차전지(42.5%), 첨단화학소재(14.2%)가 전체 입주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 화학기반의 산업이 새만금의 중추 산업으로 자리매김
- 단순 생산시설의 집합이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이 가능한 8개의 연구지원기관도 함께 입주



출처 :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자료 연구진 재구성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제는 성숙기 혁신클러스터로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공간적 하드웨어의 구축·확장, 중앙부처의 다양한 정책 대상으로 선정, 기업투자의 대형화, 산업의 다양성과 기술혁신 연구지원기관 등이 어우러진 생태계 등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의 전환이 필요
  - 기존의 공간적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단지조성, 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유치 중심에서 전국적 다양한 국가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등과 경쟁 속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순환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시급
  - 광활한 부지 제공 중심에서 지식과 기술의 창출, 입주기업과 기관간 교류로 지속 가능한 미래형 기업집적단지로 구현 필요



### III. 기업집적단지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사례

#### 1. 국가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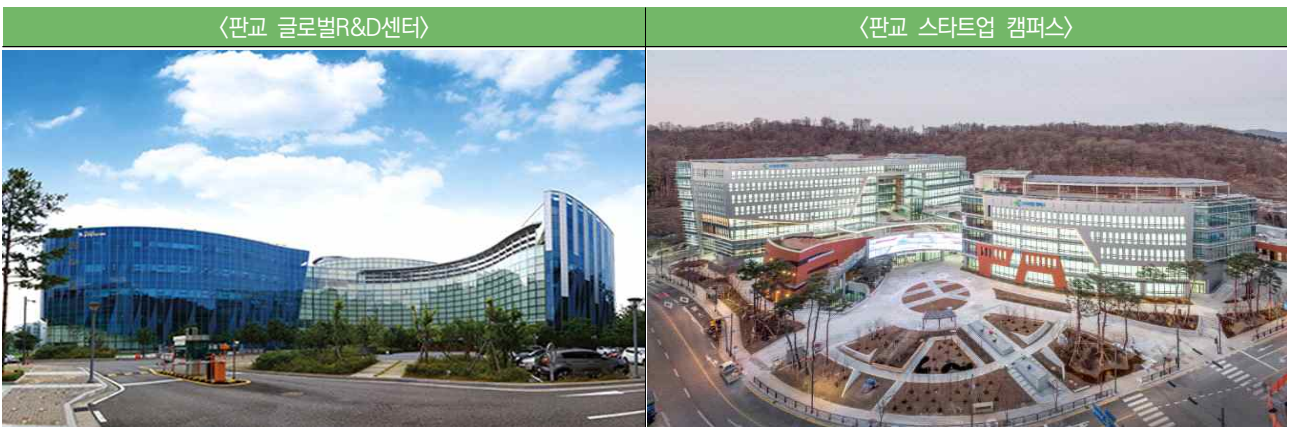
#####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최근 기술트렌드에 따른 단지 고도화와 기업지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 조성 이후 시설관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단)이 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이며 단지관리 뿐만 아니라 기업지원도 병행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산단의 시실증과 탄소중립산단 등 산단 하드웨어의 고도화 추진
  - 입주기업의 ESG경영, 산학연협업체 구성을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 등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도 추진

#### 2. 판교테크노밸리

##### 수도권 신도시 하드웨어와 민관협력형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판교신도시 개발지구 내 도시지원 시설용지를 통해 제1판교테크노밸리, 성남 수정구 시흥동 일대 제2판교테크노밸리, 성남 수정구 금토동 일대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차례로 조성(중)
  - 전체 약 1.67Km<sup>2</sup>(50만 평)의 규모이며, 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공구(약 1.9Km<sup>2</sup>) 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1,780개 기업(조성 중인 제2판교 제외)이 입주, 전체 매출 규모는 226조 원 수준(판교테크노밸리, 2026)
- 조례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벤처기업, 입주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판교와 광교를 담당하는 테크노밸리혁신단을 운영 중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팀은 실태조사, 담보관리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사업, 판교 통합홍보 등 기업 지원사업을 진행 중
  -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지원을 위한 글로벌R&D센터(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스타트업캠퍼스(벤처캐피탈 등),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 스타트업 등의 입주와 육성을 지원



출처 :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

### 3. 국가식품클러스터

####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식품산업 진흥의 보완적 법적 기반 확보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위를 갖고 산업단지라는 하드웨어를 조성
  - 국가산업단지 지위를 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 계약, 공장 등록 등 산업단지를 관리
- 동시에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 참여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명시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 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패키징센터, 품질안전센터, 식품벤처센터,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예정),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예정) 등 각종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
  - 아울러 공동기술개발, 식품기업 해외인증, 식품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이 진행됨

〈하드웨어 - 산업집적법〉	〈소프트웨어 - 식품산업진흥법 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산업단지 지정</li> <li>• 관리기관 지정 : 한국산업단지공단 (참고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 기본방향, 참여기업 역량강화, 상호연계, 지원기관, 투자유치 등</li> <li>•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설립 : 정책개발, 참여기업 지원, 연계활동, 홍보사업 등</li> </ul>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연구개발특구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기술집약형 클러스터

- 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상호협력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로 국가나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산업단지 등을 특구로 지정, 관리기관을 특구로 일원화
  - 전북특구의 완주테크노밸리, 광주특구의 장성나노일반산업단지, 부산특구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특구본부로 관리기관 변경
  - 이는 특구법 제34조, 제43조 등에 따라 특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의 일원화 차원임
- 국토부, 지자체가 조성한 산업단지 하드웨어 기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적 특구 사업이 결합하여 기술집약적 혁신 거점 고도화를 위한 입주기업을 지원
  - 연구개발특구는 광역특구 기준 매년 1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화, 샌드박스 등 지원

〈하드웨어 조성〉	〈하드웨어 관리 + 소프트웨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일반 등 산업단지 조성 (중앙정부/국토부 지정, 지방정부, 민간사업자 등)</li> <li>※완주테크노밸리 사례 : (주)완주테크노밸리</li> <li>- 완주군-특수목적법인 민관합동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특구 지역본부</li> <li>- 하드웨어 관리 : 입주계약/입주현황 등</li> <li>- 소프트웨어 지원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지정 등</li> </ul>

## IV. 새만금, 지속가능한 산업집적지를 위한 과제

### 새만금특별법, 단지 개발·조성에서 기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동력으로 개정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하드웨어적 공간 조성에서 입주한 기업, 입주 예정 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새만금특별법은 원활한 새만금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됐으나 기업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타 사례와 비교 시 미비한 사항
  - 새만금특별법 6장, 8장에서 하드웨어 사용과 관련된 사항,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나 종합적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지 않음
- 새만금특별법이라는 독자적 체계를 토대로 산업입지법,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연구개발특구보다 더욱 강력한 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발굴하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필요

〈새만금특별법〉	〈기업집적단지 관련 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장(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토지·건물 사용허가, 체육시설, 특별건축구역, 규제자유특구, 지역기업 우대 등</li> <li>• 8장(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여건 개선) : 세제, 주택공급, 교육기관, 외국방송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식품클러스터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li> <li>•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특구법 제3장(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 연구소기업, 특구 내 기관 교류협력, 혁신역량 지원, 특구육성사업, 공동연구개발, 실증 규제특례 등</li> </ul>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만금 입주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 지원할 전문 파트너 확보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새만금개발청이 개발계획, 투자유치, 산업전략, 단지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는 가운데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사업으로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이 증가하면서 개별기업의 지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특구본부 등의 사례처럼 입주기업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새만금국가산업단지〉	〈기업집적단지 관련 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개발청 - 산업단지입주관리단(2026.2월 출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식품클러스터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li> <li>•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특구본부</li> <li>• 국가산업단지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li> <li>• 판교테크노밸리 - 테크노밸리혁신단(판교, 광교)</li> </ul>

출처 :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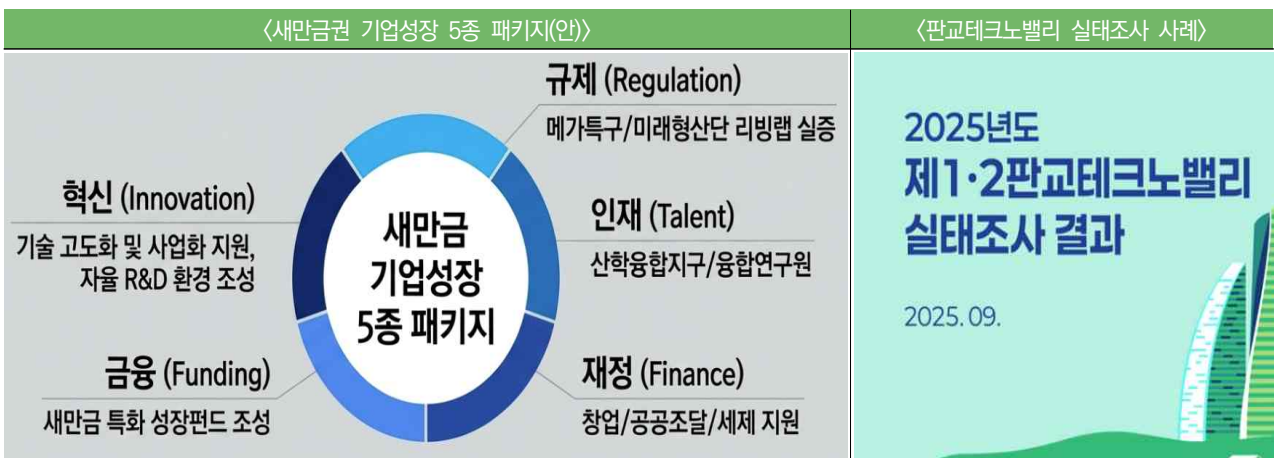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지원 전문 파트너가 구축되어 새만금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국책사업을 통합적 관리로 시너지 창출 필요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전북TP), 에너지융복합단지(전북TP), 고용특구(전북산학융합원), 투자진흥지구(새만금개발청), 강소연구개발특구(군산대) 등 각종 국책사업의 주관기관이 상이
  - 새만금 내 다양한 사업이 다양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전체를 통합적 조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주체(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입주기업간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교류·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

- 새만금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 확대에 따라 기업의 수, 업종 등이 늘어남에 따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기업 간 상호 교류하고, 정보가 교환되는 소통 플랫폼 확보 필요
  - 새만금산단 내 동일한 업종 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동시에, 다른 업종 간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산업·기술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형 기업생태계 조성
  - 기업의 현장 중심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교류하기 위한 산, 학, 연 협력체계 확립(사례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학연협의체, 전북연구개발특구 산학연관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등)
- 새만금개발청이 2026년 2월 출범한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주도로 추진하는 기업간 간담회, 설명회 등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산학연 교류 생태계의 외연 확장, 이를 촉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중장기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담기관을 통해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필요
  -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단지내 카페, 맛집, 공유오피스, 개방형 캠퍼스(예 : 뉴욕 코넬테크) 등을 확충하여 소통 환경 조성
  - 산업단지내 법률·금융·세무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입주를 확대하여 기업지원의 접근성 개선 필요
  -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권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정기적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와 웨케이션 및 휴식 등을 통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위한 교류, 협업의 연수시설 등을 구축

### 입주기업이 체감하는 기업수요기반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 발굴·가동

-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지원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정부가 권역별 성장엔진에 지원하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의 성장 5종 세트에 준하는 혜택을 새만금에 구현
  -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의 특수성, AI·수소, RE100, 이차전지 등 국가적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새만금 맞춤형 기업성장 5종 패키지를 독자적 운영(예 : 새만금권 - 인재양성 산학융합지구/융합연구원, 메가특구, 자율 R&D, 성장펀드, 창업/공공조달 등)
- 새만금권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의 5종 세트의 구체적 수요 파악을 위한 새만금 입주기업 실태조사 정례화
  - 연구개발특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추구
  - 국가산업단지에서 공표하는 통계는 생산, 고용 등 일부 현황만 파악됨
  - 따라서 입주기업의 일반현황, 인력수급, 규제혁신, 연구개발 수요, 금융수요와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별도의 정례화된 조사가 필요함(사례 :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출처 :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  
그림 : NotebookLM

### 새만금 하드웨어, 살아있는 실험공간으로 고도화

- 새만금 하드웨어는 전력, 용수, 용지 등 기업 생산 활동을 위한 기초여건 제공을 넘어, 기업의 혁신 기술을 실제로 검증하고 완성하는 거대한 실험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5공구, 6공구에 국내 최초 지정한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을 3공구, 7공구, 8공구 등에도 적용, 미래도시를 위한 실험실로 알려진 도요타의 우븐시티처럼 새만금을 미래 산업단지를 위한 실험실로 육성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전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운영하고 입주기업의 AI전환(AI)을 위한 AI실증, 무탄소 기술을 실증하는 탄소중립산단,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실증하는 RE100실증산단 등 산업단지 기반의 신기술 실증 허브로 고도화 추진



그림 : NotebookLM

### 새만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중심을 위한 5대 과제 : 일명 LEAPS for 새만금산단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성숙단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형 집적단지로 도약(LEAP)하기 위해 법적기반(Legal), 산학연 융합 생태계(Ecosystem), 공간 고도화(HW Advancement), 전담체계(Partner), 기업지원(SW Support) 등 5대 과제에 대한 'LEAPS for 새만금산단' 프로젝트로 제시함

〈새만금, 지속가능한 산업집적지 도약을 5대 과제(안) : 일명 새만금 국가산단 LEAPS〉



## 참고 문헌

---

- Arjen Van Klink & Peter De Langen, (2001). Cycles in industrial clusters: the cas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Northern Netherland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Royal Dutch Geographical Society, 92(4), 449-463.
- Porter, M. 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77-90.
- 임종빈, 황두희, 정승용, 임덕순, 성영조. (2022). 한국의 지역 혁신클러스터 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 혁신클러스터연구, 13(1), 27-53.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5). 2025년 3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요약
- 판교테크노밸리. (2026). 2025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
- 새만금개발청. (2025).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계약 현황(2024년 12월 기준)

Vol. 342  
ISSUE BRIEFING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